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1	①	2	⑤	3	④	4	③	5	②
6	③	7	③	8	①	9	⑤	10	②
11	②	12	④	13	⑤	14	③	15	⑤
16	③	17	⑤	18	④	19	④	20	⑤
21	①	22	④	23	④	24	⑤	25	③
26	③	27	⑤	28	①	29	③	30	⑤
31	⑤	32	②	33	①	34	②	35	③
36	③	37	④	38	④	39	④	40	④
41	⑤	42	③	43	②	44	②	45	④

[화법]

1.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1문단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 알려 드리고자 발표를 준비했습니다.'라고 화제를 선정한 이유를 밝히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발표를 마무리하며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발표 대상인 '광용적맥과 측정 기술'의 종류를 열거하며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광용적맥과 측정 기술'과 관련된 잘못된 통념을 지적하며 발표 내용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광용적맥과 측정 기술'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며 발표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 [출제의도] 발표 전략 파악하기

2문단에서 '측정 부위의 혈류량이 많을 때는 ~ 상대적으로 반사되는 빛이 많아집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그래프를 제시하였으나 빛의 반사량과 측정 부위의 혈류량은 반비례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광용적맥과 측정 기술에 대해 모르는 학생이 많음을 고려하여, 1문단의 발표 시작 부분에서 동영상 등을 통해 이 기술이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사례를 보여 주며 흥미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빛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배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2문단에서 그림 2를 통해 빛의 투과, 흡수, 산란, 반사 등의 특성을 설명하며 청중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스마트 기기에서 나오는 빛이 왜 녹색인지 궁금해할 학생을 고려하여, 2문단에서 그림 3을 통해 혈액 속 헤모글로빈이 붉은색이어서 보색인 녹색을 잘 흡수함을 설명하며 청중의 궁금증 해소를 돕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PPG 센서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해 그림 1을 제시하여 LED와 광센서의 모습을 보여 주는 도식을 통해 제작의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 [출제의도] 청중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학생 1은 '평소에 스마트 기기를 통한 ~ 알 수 있어서 좋았어.'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궁금증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학생 2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 아쉬웠는데'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 1은 '발표를 들으면서 ~ 알 수 있어서 좋았어.'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발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학생 2는 '예전에 스마트 손목시계로 ~ 정확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학생 3은 '예술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지?'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발표 내용으로 알 수 없는 정보에 대해 자신의 궁금증

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학생 2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 ~ 추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어.'라고, 학생 3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학생 2와 학생 3 모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화법·작문]

4. [출제의도] 진행자의 역할 이해하기

(가)의 '학생 1'의 발화에서 토의에 참여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은 후 보충 설명을 요청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지난 시간에 어르신들 ~ 준비해 왔지?'라고 하며, 지난 활동의 내용을 언급하며 토의 참여자들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지금부터 준비해 온 ~ 계획을 세워 보자.'라고 하며, 토의 참여자들에게 논의할 내용을 안내하며 토의를 시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학생 1'은 세 번째 발화에서 '그런데 홍보 포스터를 ~ 기념회를 하자는 거지?'라고 하며, 토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그런데 이 활동은 ~ 이야기해 보자.'라고 하며, 추가로 논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학생 1'은 네 번째 발화에서 '그런, 제안서 작성을 위해 ~ 찾아 주면 좋겠어.'라고 하며, 토의 참여자들의 역할을 제안하였고 '다음 시간에는 ~ 이만 마칠게.'라고 하며 토의를 마무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기

[A]의 '학생 3'은 상대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근거를 들어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와 달리 [B]의 '학생 3'의 '참가를 희망하시는 어르신들 세 번 정도 뵙자'는 제안에 대해, '학생 2'는 '그런데 자서전 ~ 뵙는 게 좋겠어.'라며 '자서전 분량이나 녹음 과정을 생각하면'을 근거로 '다섯 번' 정도 뵙는 게 좋겠다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6. [출제의도] 작문 계획의 반영 여부 파악하기

(나)의 3문단은 토의에서 요청 사항을 수용할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의 2문단에서 '오늘날 지역 사회에서는 ~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세대 간 문화 단절 현상은 ~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 봉사 활동을 계획했습니다.'는 (가)의 토의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우리 지역 문제 중 하나인 '세대 간 문화 단절 현상'을 바탕으로 봉사 활동을 계획한 취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학생 1'의 세 번째 발화에서 학생들이 논의한 봉사 활동 계획을 요약하고 있다. (나)의 3문단에서 '먼저,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 참가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후에 어르신들 ~ 완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서전이 ~ 진행하려고 합니다.'는 (가)의 토의에서 언급한 봉사 활동 계획을 진행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의 '학생 2'의 다섯 번째 발화에서 복지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제안에서, '우리 세대와 어르신 세대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의 4문단에서 '위와 같이 복지관에서 ~ 얻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는 (가)의 토의에서 언급한 봉사 활동의 의미를 활용하여 요청 사항이 수용되었을 때 어르신들에게 기대되는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의 4문단에서 '또한 저희가 찾은 ~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는 (가)의 토의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자서전 쓰기의 긍정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7.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㉔의 앞 문장과 뒷 문장인 '이런 활동들 ~ 지원이 필요합니다.'와 '자서전 출판 ~ 지원도 요청드립니다.'는 병렬적으로 연결되므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인 '그러나'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이를 수정하기 위해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인 '그러므로'로 고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① (나)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자서전을 써 드리는 봉사 활동 계획을 밝히고,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의 제안서이다. 그러므로 ㉔의 '세대 간의 갈등 외에도 우리 학교에서는 선후배 간의 갈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는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㉔의 '완성된 어지먼'의 '되어지다'는 '-되다'와 '-어지다'의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므로 '완성되면'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④ ㉔의 '돌이켜'는 뒤에 오는 '지난 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다'는 의미의 동사인 '회고하다'와 의미상 중복된 표현이므로 '돌이켜'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㉔의 '지역 주민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복지관의 발전을 추구할'에서 '긍정적인 영향'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으므로 '미치지'라는 서술어를 추가하여, '지역 주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복지관의 발전을 추구할'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작문]

8.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작문 상황에서 이 글의 주제가 '청소년 칼럼 부족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학생의 초고의 3문단에서 청소년들의 칼럼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가정, 학교, 사회적 차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9.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판단하기

[자료 1-㉔]에서 칼럼 결핍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자료 3]에서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영양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므로 '올바른 영양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자료를 토대로 학생 스스로 영양 정보를 선별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자료 1-㉔]에서 칼럼 섭취량이 권장 섭취량 대비 58.9%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칼럼 섭취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자료 2]에서 청소년들의 고가제인 음료 섭취가 '최근 3년간 4배 이상 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칼럼의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을 선호하는 청소년 식습관의 사례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자료 3]에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영양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영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는 종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차원의 해결 방안을 구체화하는 예시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자료 1-㉔]에서 청소년의 나트륨 섭취량은 권장 섭취량 대비 169.5%로 나타난다는 것을, [자료 2]에서 나트륨 섭취가 칼럼 배출을 촉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자료 1-㉔]과 [자료 2]를 활용하여 잘못된 식습관이 칼럼 부족을 야기한다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은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조건에 따른 글쓰기

'나도 모르게 발끈한 내 마음'에서 갈등이 부족할 경우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법인은 갈등 부족입니다'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문법]

11. [출제의도] 서술어의 자릿수 파악하기

'삼다'는 주어와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인데 '선생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다.'는 주어인 '선생님께서'와 필수적 부사인 '제자로'는 있지만 목적어가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 ① '잡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인데 '동생이 내 손을 꼭 잡았다.'는 주어인 '동생이'와 목적어인 '손을'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므로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③ '잡다'는 주어만을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인데 '이 책의 내용은 생각보다 쉽다.'에는 주어인 '내용은'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④ '만들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인데 '나는 밤새 보고서를 겨우 만들었다.'는 주어인 '나는'과 목적어인 '보고서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므로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⑤ '소개하다'는 주어와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인데 '그는 자신의 친구에게 나를 소개했다.'는 주어인 '그는', 목적어인 '나를', 필수적 부사인 '친구에게'가 모두 갖추어져 있으므로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다.

12. [출제의도] 서술어의 선택 제약 파악하기

㉢는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라는 의미를 고려할 때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므로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직분이나 신분을 의미하는 체언이고만 어울리는 선택 자질은 목적어 자리에 오는 단어에만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는 '생명을 지니고 있다.'라는 의미를 고려할 때 주어에 '생명을 지닌 존재'를 선택하여 결합해야 서술어의 의미가 온전하게 표현되므로 적절하다. ② ㉠은 주어와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고 ㉢는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므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종류는 다르지만,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는 2개이므로 적절하다. ③ ㉠은 '어느 곳에 거주하거나 거처하다.'의 의미를 고려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사어 자리에 '장소'를 의미하는 체언이, ㉡는 '어떤 사람과 결혼하여 함께 생활하다.'의 의미를 고려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사어 자리에 '결혼을 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체언이 한결맞으므로 적절하다. ⑤ ㉢는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어릿짐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 문장의 서술어이므로 한 자리 서술어이고 ㉡ 또한 한 자리 서술어이므로 적절하다.

13. [출제의도] 관형사의 특징 파악하기

ㄴ의 '새로'는 동사 '사다'의 활용형인 '산'을 꾸며 주는 부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ㄱ에서 '이'는 뒤에 오는 체언인 명사 '상절'을 꾸며 주는 지시 관형사이므로 적절하다. ② ㄱ에서 '현'은 뒤에 오는 체언인 명사 '물건'의 상태를 드러내 주는 성상 관형사이므로 적절하다. ③ ㄴ의 '다섯'은 수사로 주격 조사 '이'와 결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ㄱ의 '두'는 뒤에 오는 체언인 의존 명사 '곳'을 수식하고, ㄴ의 '한'은 뒤에 오는 체언인 의존 명사 '별'을 수식하는 수 관형사이므로 적절하다.

14.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보기>의 학습 자료 ㄱ~ㄴ에 나타난 음운의 변동을 분석하면 '목화숨[모과숨]'은 'ㄱ'과 'ㅎ'이 합쳐져 'ㅋ'이 되는 음운의 축약이 1회 나타나고, '홍명이[홍명이]'는 '리'의 'ㄹ'이 탈락하는 음운의 탈락 1회와 'ㄷ'이 'ㄸ'으로 교체되는 음운의 교체 1회가 나타나며 '새벽이슬[새빙니슬]'은 'ㄴ'이 새로 첨가되는 음운의 첨가 1회, 'ㄱ'이 'ㅇ'으로 교체되는 음운의 교체 1회가 나타난다. 따라서 '두 개의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현상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ㄱ에만 '예'라고 표시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5.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이해하기

㉠에서 동사 '가된다'는 선어말어미 '-더-'를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선어말어미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거 시제를 표현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① 동사 '닐오리라'는 선어말어미 '-리-'를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동사 '묻는다'는 선어말어미 '-느-'를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형용사 '어엿다'는 아무런 선어말어미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형용사 '업더라'는 선어말어미 '-더-'를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인문]

[16 ~ 21] <출전> 박정자, 「시물라크르의 시대」
인영매, 「보드리야르:현대예술과 초미학」

16.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가)는 플라톤의 철학적 세계관에 따른 시물라크르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반플라톤주의 철학자 들뢰즈의 비판과 그의 시물라크르에 대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나)는 철학자 보드리야르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현대 시물라크르에 대한 관점을 시물라크르가 산출되는 과정과 초미학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7. [출제의도] 내용 이해하기

(가)의 1문단을 통해 플라톤은 가지적 세계와 가지적 세계를 구분하고, 가지적 세계에는 결코 변화하지 않는 본질, 즉 실제인 에이도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의 2문단을 통해 에이들론은 가지적 세계의 사물임을 알 수 있으므로 가지적 세계에 있는 본질은 에이도스와 에이들론으로 구분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8. [출제의도] 사례에 적용하기

<보기>의 [자료 2]에서 '의자 0'은 가구 장인 B가 만든 의자를 본떠 직접 그린 '의자 1'의 모델로, 결국 가구 장인 B가 만든 현실 세계의 의자이다. 그런데 (가)의 1문단과 2문단에서 플라톤은 장인처럼 에이도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만든 가지적 세계의 사물은 실제하는 본질인 에이도스가 있는 가지적 세계를 모방하여 재현한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가)의 1문단과 2문단, 4문단을 통해 볼 때, 플라톤의 입장에서 <보기>의 [자료 1]에서 실제 상품을 베낀 초안을 그린 후 이를 변형한 '첫 캐릭터'는 시물라크르로 모방을 거듭하면서 본질에서 멀어진 가짜이다. 하지만 들뢰즈는 시물라크르를 사물 그 자체로 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2문단과 4문단을 통해 볼 때, 플라톤의 입장에서 <보기>의 [자료 1]에서 A가 실제 상품을 베낀 '초안'과 이를 변형

한 '첫 캐릭터', 그리고 다시 이를 의인화한 '최종 캐릭터'는 모방한 것을 다시 모방한 것이자, 실제하는 본질에서 멀어진 이미지에 불과한 것이지만, 들뢰즈의 입장에서는 '초안', '첫 캐릭터', '최종 캐릭터'는 반복을 통해 생성된 실체로서 지닌 의미 그 자체이므로 적절하다. ③ <보기>의 [자료 1]에서 '최종 캐릭터'는 광고로 반복하여 방영된 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되며 실제 상품보다 사랑받는 인기 캐릭터가 되었는데, (나)의 1문단에서 보드리야르는 광고가 생산한 복제 이미지가 실제보다 더 실제적이고 우월한 것이 된 것을 시물라크르라고 말한다고 하였고, 2문단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시물라크르는 그 자체로서 실재를 대신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보기>의 [자료 2]에서 '의자 3'은 화가 C가 '의자 1'을 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린 '의자 2'를 다시 변형하여 그린 것인데, (가)의 4문단에서 플라톤이 시물라크르가 모방을 거듭하면서 본질에서 멀어진 가짜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들뢰즈는 원본과 사본의 우위를 부정하는 역동적인 힘이 있는 사물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사례에 적용하기

(나)의 1문단에서 보드리야르는 현대 사회에서는 복제 이미지가 실제보다 더 실제적이고 우월한 것이 된다고 하였고, 이러한 현대 사회의 이미지를 '초과실재'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보드리야르 입장에서 <보기>의 [자료 1]에서 실제 상품보다 사랑받는 인기 캐릭터가 된 '최종 캐릭터'는 현대 사회의 복제 이미지가 실제보다 더 실제적이고 우월한 것이 된 초과실재이므로 적절하다. 반면 (나)의 3문단에서 보드리야르가 예술이 가지고 있던 미적 가치가 사라지고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아름답거나 추하지 않게 된 상태를, 예술 그 자체가 내과되어 사라진 초미학이라고 부른다고 한 것으로 볼 때, 보드리야르 입장에서 <보기>의 [자료 2]에서 B가 자신이 만든 의자를 본떠 직접 그린 '의자 1'이 예술성을 인정받은 순간은 예술 그 자체가 내과되어 사라진 상태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가)의 1문단과 2문단을 통해 볼 때, <보기>의 [자료 2]에서 B가 만든 의자는 플라톤의 입장에서 에이도스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장인이 만든 좋은 이미지인 것과 달리, <보기>의 [자료 1]의 실제 상품을 베껴 그린 초안은 에이도스에 대한 지식은 없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모방하여 재현한 나쁜 이미지이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2문단을 통해 볼 때, 플라톤의 입장에서 <보기>의 [자료 1]의 A가 그린 캐릭터들과 [자료 2]의 C가 그린 그림들은 모두 사 이미 기술로 모방한 것을 모방한 가짜에 불과하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3문단을 통해 볼 때, 들뢰즈의 입장에서 <보기>의 [자료 1]에서 옴로 회사가 첫 캐릭터에 대해 한 혹평과 [자료 2]에서 평론가들이 '의자 0'에 대해 한 극찬은, 각각 첫 캐릭터는 상품의 특징을 드러낸 것에 따라, '의자 0'은 원본에 가까운 정도에 따라 위계적인 질서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의 2문단과 3문단을 통해 볼 때, 보드리야르 입장에서 <보기>의 [자료 1]의 설문 조사 결과에서 '최종 캐릭터'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되는 등 실제 상품보다 사랑받는 인기 캐릭터가 된 것은 실제 상품을 모델로 수정되며 그러한 최종 캐릭터가 광고에서 반복되면서 실제 상품보다 더 실제적이고 우월한 초과실재가 된 것이고, [자료 2]의 각국 미술관에서 예술가들이 깃발, 책상 등을 그대로 전시하고 예술을 논하는 현상은 일상적인 사물이 예술에 가까워지면서 모든 것이 미학적인 것이 되어 일상 사물과 예술 작품 간의 경계가 붕괴된 상태이므로 적절하다.

절하지 않다.

① '병이 깊고'와 '돌미나리 혼잣말'로 석찬을 헛자타니'는 화자의 힘듦과 곤궁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부정적 상황에 놓인 화자의 처지를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조물이 새오던가'는 조물주의 시샘을, '세수의 마히 고하'는 세상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규화는' 화자를 의미하며 '못 피어 시들거다'에는 임과의 만남이 실현되지 못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형상화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대가터 고든 절'은 임에 대한 화자의 절개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변치 않는 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3.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 파악하기

(가)에서 ㉠의 '님의 집'은 화자가 '님의 집'을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와 임의 관계가 소원함을 드러내는 소재이고, (나)에서 ㉡의 '주인집'은 '어려 식구의 목숨이 나로 인해 완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늙은 말과 주인의 관계가 밀접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므로 적절하다.

34. [출제의도] 구조도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B에서 '말'은 과거 자신의 공로를 나열하여 A에서 '주인'이 말에게 나가라고 한 것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나이가 아직 어려 힘이 왕성할 때'와 노쇠해진 지금의 능력이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능력이 변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① A에서 '주인'은 '말'이 '나이기도 이제 많아졌고 힘도 쇠하여졌'으므로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B에서 '말'은 자신을 끄는 데 있어 '동쪽 교외의 무성한 풀'과 '남쪽 산골짜기의 맑은 물' 정도면 충분하고, 자신을 사용하는 데 있어 '힘'과 '재주'를 헤아려 일을 시키면 된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인'을 설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C에서 '주인'은 '관자'가 늙은 말 덕분에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고사를 인용하여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D에서 '주인'은 A에서 '말'에게 나가라고 했던 자신의 처분을 번복하고 노비에게 '말'을 '잘 먹이'고 '욕당함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현대소설]

[35 ~ 38] <출전> 연삼성, 「효풍」

35.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특정한 말과 행동을 하는 이유를 '그러나 영감은 처음부터 안하무인인 그 태도가 아니꼬웁게 보여서 말대꾸도 아니 해 준다.', '마주 앉았던 청년은 노인네를 객담만 언제까지 듣고 있을 수 없어서 ~ 자기의 용건을 꺼낸다.' 등과 같이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서술자가 장면에 따라 달라지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로 나누어져 서술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사건을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서술자가 등장인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6. [출제의도] 공간의 의미 파악하기

'빈대떡집'은 처지가 영락했다는 면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남원으로부터, 김관식이 빈대떡집에 앉아 있는 것이 가없어 보인다는 동정을 받는 공간이고, '서재'는 부지런히 정치 현실에서 활동한다는 면에서

자신과 상반된 처지인 박종렬로부터, 김관식이 정치 운동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는 공간이므로 적절하다.

37.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에는 '정 못하겠거든 고문오라라도 이름을 걸어 달라는 것이다.'에서 보듯이 자신의 제안에 대한 상대의 반응을 본 뒤 처음보다 기대 수준을 낮추어 수정 제안을 해야겠다는 심리가 담겨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에는 '제일선'에서 '지도'를 해 줘야 할 사람이라고 상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을 담아, 정치에 참여하라고 상대를 설득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에는 '노인네들 객담만 언제까지 듣고 있을 수 없어서 ~ 자기의 용건을 꺼낸다'에서 보듯이, 상대를 정치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겠다는 방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목적과 무관해 보이는 화제를 상대의 정치 참여와 관련된 화제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에는 '이 영감의 말이 ~ 불쾌해지키는 지긋이 참았다'에서 보듯이, 상대에게 면박을 당한 것에 대한 불쾌감을 누르고 자신이 시작하려는 사업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대의 생각을 반박하려는 심리가 담겨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에는 실제 사회 현실과 거리를 두고 '방' 안에 머무르겠다는 상대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삼천만이 모두' 가진다는 경우를 가정하여 그와 같은 가치관이 잘못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8. [출제의도] 의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김관식이 '나 같은 사람'은 '정당'에 참여하는 것이 '당치 않'다고 하며 거부한 것은 정당에 입후보하라는 상대의 제안에 대한 거부의 뜻을 표한 것일 뿐, 초라한 자신의 처지에 자괴감을 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남원이 오래 전에 잡지도 경영하고 '신진 작가'로 이름을 날리던 지식인이었지만 '웃대를 던지고 빈대떡집의 주인이 되어' '지침을 부치고' 있는 것은, 인물이 기존의 삶의 방식을 바꾼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김관식이 '한 칸 방'의 안을 '선경'으로, 밖을 '쓰레기통'으로 비유하여 방 밖의 현실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현실과 구별되는 공간인 방 안에 머물고 싶다는 뜻을 드러낸 것은, 인물이 세상과 거리를 두고 의도적으로 은둔자적 삶을 사는 이유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박종렬과 청년이 'UN 단도 오기 전'인 이른 시기에 '××당 성북지구분회' 조직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며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는 것은, 인물들이 사회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면모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박종렬이 김관식에게 정당에 참여할 것을 권한 뒤 '정치 운동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말하며 정치 참여를 '또 권해' 보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력을 규합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현대시]

[39 ~ 41] <출전> 김춘수, 「부제」
황동규, 「삶을 살아낸다는 건」

39.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가)에서는 '외롭게 햇살이' '낮잠을 졸다 갔다'라고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나)에서는 '나무'가 '기침' 소리를 내며 감추었던 것들을 내놓는 모습에서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가)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나)는 '마지막 잎

들이' 지고 있는 모습에서 하강의 이미지가 나타나 있지만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반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가)에서는 '말줄임표로 끝내는 시행이 없고, (나)에서는 '이런! 삶은, 삶을 살아낸다는 건.....'에서 시행을 말줄임표로 끝내며 어운을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가)에서는 명령적 어조가 드러나 있지 않고, (나)에서는 '괜찮은 삶도 있었다니!'에서 영탄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0.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이해하기

㉠은 '낙엽'이 이쪽, 저쪽으로 아무렇게나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은 규칙적이지 않고 우연한 어떤 시간에 '바람'이 나타났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은 '햇살'이 한겨울에 쓸쓸하게 홀로인 상태임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은 '투덜대다'라는 행위가 혼자 아닌 여럿이 하는 행동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은 햇빛이 닿아서 '피라칸사 열매'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의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가)에서 '밴드라미', 나팔꽃, 봉숭아 같은 꽃들이 '칠마다 피'고는 '저 버리는' 모습에서 삶과 죽음의 순환적 공존을 알 수 있고, (나)에서 '마른기침 소리'를 내던 나무가 새롭게 '가지와 등치'를 내놓는 모습에서 소멸하는 자연물이 지닌 생의 감각을 알 수 있지만, 생의 감각이 소멸한다는 것은 알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고전소설]

[42 ~ 45] <출전> 작자 미상, 「두껍전」

42.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두 사위'와 '장인'의 대화에서 '사냥 갔을 때에 두꺼비 동서를 만나서' 일어난 사건의 정황을 드러내고 있고, 두꺼비와 '장인'의 대화에서 두꺼비가 '선관이 있다'가 '인간에 내쳐' 일어난 사건의 정황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의 안쪽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인들'은 ㉡의 '하인들'이 아니고 두꺼비가 하인들을 불러 ㉠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문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에서 '두 동서'가 '사냥한 것'을 달라고 하자 '두꺼비가' '허락'한 것에서 두꺼비는 동서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에서 ㉡으로 이동한 두꺼비를 보고 '대감'이 '늪'에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에서 대감은 자신의 사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에서 '부인'이 두꺼비의 '좋은 풍채'를 '반기며 좋아하'는 것에서 부인이 두꺼비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에서 ㉢로 가기 전에 '선관'이 '빈 상자'를 '장인'에게 주며 '잘 간수하'라고 말하는 것에서 두꺼비는 장인에게 간직할 물건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 파악하기

두꺼비가 '두 동서'의 '등에다 도장을' 찍고 '회갑 날' '그대들은 나를 ~ 욕을 보였노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은 계획한 일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적절하고, '천상에서' '욕으로 된 가마가 내려오'자 두꺼비가 '장인장모에게' '천명을 이기지 못하고 천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보면 ㉡는 명령을 이행하는 데 쓰이는 수단이므로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의적 증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두 동서’가 ‘사냥한 것’을 달라고 하자 두꺼비가 허락하는 장면에서 두꺼비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속죄를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두꺼비가 ‘진언’을 외워 ‘허물’을 벗어나 ‘하늘에서’ ‘하인들이’ 내려오는 장면에서 두꺼비가 ‘선관의 의복을 제대로 갖’춘 것을 보면 숨기고 있었던 주인공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부인’이 두꺼비에게 ‘홍한 허물을 쓰고 있었’다고 언급하는 장면에서 두꺼비를 ‘좋은 풍채’라고 하며 ‘반기며 좋아하’는 것을 보면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회갑 날’ ‘두꺼비 내외’를 ‘못 오게 하’는 장면에서 ‘그네들이’ 두꺼비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한 것을 보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박대를 당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두꺼비가 장인에게’ 자신이 ‘천상에서 비를 내려 주는 선관이었’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인간에 비를 잘못 내던 죄로’ 지상에 내려왔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주인공이 천상에서 쫓겨나 지상의 삶을 살게 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